

타이어 수출가격 5-8% 인상

천연고무 3000달러 육박 ... 2010년 초 내수가격도 올려

국내 타이어 생산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강세를 배경으로 수출가격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.

업체에 따르면, 한국타이어는 12월1일부터 미국수출용 타이어 가격을 3-5% 올렸다.

금호타이어도 2010년 1월부터 북미 지역에 공급하는 타이어 가격을 평균 7% 높이기로 했고, 넥센타이어 역시 2010년 초 수출가격을 5-8% 인상키로 했다.

타이어 생산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은 원자재인 천연고무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.

2009년 초 톤당 1400달러 정도였던 천연고무 가격은 최근 2800-2900달러까지 치솟았다.

이에 타이어 생산기업들은 제조코스트 급등을 반영해 이르면 2010년 초부터 내수가격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.

한 시장 관계자는 “고무 가격이 뛰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내수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”며 “인상시기와 폭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”이라고 전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12/24>